

신증후군 환자의 조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신세포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임상병리학교실¹

서문정, 길효욱, 김은나, 전진석, 노현진, 진소영¹, 한동철

종양에 의한 성인 신증후군이 드물지 않게 있어 진단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신세포암에 의한 신증후군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성 사구체 신염과 그리고 미세변화 증후군, 막성 증식성 사구체 신염, 아밀로이드증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부종으로 내원하여 신증후군의 진단하에 신 조직 검사를 하여 신장암이 발견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8세 여자로 4개월 전 시작된 전신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10여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중이며, 내원시 혈압은 120/80 mmHg, 다리에 함몰부종이 있었다. 소변검사에서 단백 +3, 당 음성, RBC 다수/HPF, WBC 1-4/HPF, 혈색소 12.5 g/dL이었으며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요소 질소 19.8 mg/dL, 크레아티닌 1.0 mg/dL, 알부민 3.3 g/dL, 총콜레스테롤 330 mg/dL이었고, 24시간 단백뇨는 9.2 g/d이었으며, 혈청 IgG, IgA, IgM, C3, C4은 정상이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내원 2일째 신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광학 현미경 검사에서 신세포암이 관찰되었고 나머지 신조직은 양성 신경화증이 관찰되는 것 이외에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면역형광 검사에서는 이상 면역글로블린 침착이 관찰되지 않았고 silver stain에서 spike등이 관찰되지 않아 미세변화 증후군 혹은 초기 막성 사구체 신염 등이 의심되어 전자 현미경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조직검사를 한 부위에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및 자기공명 촬영을 하여 종괴로 의심되는 부위는 없었다.

결론: 미세한 크기의 신세포암에서도 신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